

시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남긴 민주주의의 질문



김 선 기 남도인문학연구원장·문학박사

선거가 끝났다. 승자와 패자가 갈렸고, 정치권은 벌써 다음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가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선거 결과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선거 당일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물음이 더 본질적일 수 있다.

일찍 보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처럼 보인다.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렸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낀 불편과 분노는 단순히 종이 몇 장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투표용지 부족은 민주주의가 의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곧 '신뢰'에 작은 균열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는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시민에게 건네는 가장 평등한 권리의 증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 모두는 똑같은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민주주의는 바로 그 평등성 위에서 작동한다. 그렇기에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시민권의 상징이며,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는 확인서와도 같다.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거대한 이념이나 화려한 구호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의해 지탱된다. 정해진 시간에 투표소 문을 여는 일, 누구나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 시민 한 사람의 참여를 끝까지 보장하는 일. 이런 절차들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민주주의의 뼈대와도 같은 것이다.

독일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공적 공간'에서 찾았다. 시민들이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며 공동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행위가 아니다. 공동체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약속의 장이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를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가. 더 많은 시민이 투표장에 오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는가. 혹은 참여보다 무관심을 더 익숙한 현실로 가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민주주의는 시민의 무관심 속에서 약해지지만, 동시에 제도의 무성의 속에서도 흔들린다. 시민은 투표를 통해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 신뢰에 응답해야 한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제도가 되고 만다.

물론 이번 일을 지나친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성찰하느냐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행정적 실수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사회의 태도와 문화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에 더 가까운 제도다. 선거의 승패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시민들이 경험한 신뢰와 불신은 오래 남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던진 한 표의 결과보다, 자신의 한 표가 존중받았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 민주주의의 품격은 거창한 정치담론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시민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다.

한 장의 투표용지는 작고 가볍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공동체가 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족했던 것은 어쩌면 종이 몇 장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시민의 참여를 끝까지 보장하려는 상상력, 그리고 민주주의를 대하는 성실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자치칼럼

6·3 지방선거의 교훈



임 우 진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제9회 통합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살펴본다.

먼저, 무엇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 중단된 사건이다. 선거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기다리거나 되돌아간 초유의 사항이다. 결국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행정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고, 개표중단과 재선거 요구 등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도 감독자가 있고 감사부서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기강해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 업무 자체가 특별히 난이도 높은 업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치열한 대립·경쟁 속에서 진행되는 선거를 관리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선거관리에 대한 부정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이어 내부 직원 자녀들의 채용비리와 소쿠리 선거관리 등으로 비난과 불신이 누적됐음을 감안 한다면, 더욱 빈틈없는 관리로 신뢰 회복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흐트러진 내부기강과 문화가 신뢰 회복은 커녕 더 큰 사고를 치고만 것이다. 기관에 대한 과도한 독립성이 자신들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둘째,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증가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은 총 511명으로 전체 선출 정수(4천227명)의 약 12%에 달하고 있다. 종래에는 호남과 대구 경북이 무투표당선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이번에는 수도권이 223명으로 전체 무투표당선의 43%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73명 이외에는 많지 않았으나 2022년 502명에 이어 심각한 상황이었다. 무투표 당선 지역 유권자들의 경우 참정권 및 알 권리 박탈된 셈이다.

무투표 당선증가의 핵심원인은 거대당당의 지역독점이다. 소수 정당, 무소속 후보들이 "어차피 나기도 떨어진다"며 출마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지역독점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자동으로 당선되기 때문에 선거가 정당 간 경쟁이 아닌 당내공천경쟁으로 바뀐 탓이다. 영호남에서는 독점정당이 선출정수만큼만 공천, 수도권에서는 2-3인 선거구를 거대당당이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방선거 과정에 시행한 여성특구제도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올해로 4번째 시행한 특구운영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금년에는 청년특구 없이 여성특구만 4곳을 지정 운영했다. 그러나 특구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고, 공천 3-4개월 전 갑작스런 특구지정으로 그 지역 입지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또한 어떤 청년, 여성도 생소한 특구에 갑작스런 도전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특정인을 배주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반복됐었다. 민주

당이 진정으로 좋은 후보들을 공천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특구를 발표해 입지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합리적 여론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한 제도 운영이 어렵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넷째, 선거과정에서 정책경쟁이 실종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지방자치 일꾼을 선출하는 제도인데도, 중앙정당의 세력대결의 장이 돼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고 중앙정당들의 정쟁과 이념대결이 선거판을 지배하게 된다. 또한 지방 입지자들은 지역문제의 발굴과 정책마련 보다는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당원모집과 관리가 주된 선거운동이 되고 있다. 지역독점지배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 공천경쟁은 당원 모집 경쟁이 되고 이미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다름없기에 본 선거에 관심이 없다. 지방선거라고 해도 지역의 정책을 논의 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6·3 지방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슈와 사건 등은 모두가 견제감시받지 않는 기관, 그리고 지역의 정치적 독점지배에서 비롯된 부작용이고 폐해라는 점이다. 선관위의 신뢰상실, 무투표당선, 정책경쟁 실종, 비합리적 특구운영 등 합리적인 선거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독점이 장기화되면서 그 폐해가 고질화되면서 따른 것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따듯한 사랑의 매를 두는 것이 진정으로 지역과 지역기반 정당을 사랑하는 길임을 깨닫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이 기사는 지역선분별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작은 관심과 신고가 어르신들의 삶을 지킵니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고령사회로 빠르게 접어든 지금, 우리는 '오래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향한 보호와 관심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더 이상 낯선 사회문제가 아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과 무시, 경제적 착취, 방임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대부분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상처는 어

르신들에게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남는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피해를 주지 싫다", "참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고통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학대는 침묵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방치될수록 더 큰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학대 예방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평소와 다른 명 자국, 반복되는 위축된 모습, 생활고에도 설명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연락이 끊긴 이웃 어르신에 대한 작은 관심이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주변의 관심과 신고는 누군가의 삶

을 지키는 가장 빠른 도움이다. 어르신들을 향한 폭력과 방임은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오늘의 사회를 만들어 온 세대이며 현재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들 도 인젠가 모두 노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에 노인을 향한 존중과 보호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된 과제다. 6월 15일 노인 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르신들이 존중 속에서 살아가길 수 있도록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문소희·보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광주 기아 야구장 등서 말뿐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연일 관중석을 메운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경기 후엔 곳곳에 흩날리는 쓰레기 산이 남기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31곳 식음료 매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화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단 3곳(9.6%)에 불과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2024년 환경연이 진행한 실태 분석에 따르면 7번의 흡경기에서 일회용 컵 2만 1천88개, 빨대 5천816개 등 총 3만 6천여개가 배출됐다. 경기당 무려 5천100개 이상이다.

비단 기아 챔피언스필드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카페·패스트푸드점의 사용도 비수했다. 광주지역 프랜차이즈 매장 총 57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했다니,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의 매장 내 일회용 컵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미체결업소의 1.8%보다 더 높았다. 테이크아웃 상황은 양측 모두 심각했다. 협약 체결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65.9%, 종이컵이 29.3%로 전체의 95.2%에 해당했다. 개인 텀블러는 4.8%에 그쳤다. 아울러 81.6%가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했다. 이는 2025년 69.8%에 비해 11.8%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난의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기후

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을 통해 종이컵 금지와 모든 빨대의 원칙적 제한(소비자 주문 시 제공)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광주 시민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모이는 기아 챔피언스필드도 대규모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공간이 아니어야 한다고 광주환경연은 강조했다. 타이거즈 구단은 물론 시민들도 적극적인 환경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은 입점 매장 계약 시 대화용기 의무화 조항을 즉각 도입하며 스마트오더 시스템에 '개인 대화용기 선택' 기능을 신설하고 일회용품 감축 가이드라인 수립을 촉구했다.

더불어 편의주의적인 혼합 배출 안내를 중단하며 클리닝타임 등에 선수와 마스코트가 함께 참여하는 관중 참여형 캠페인의 상시 전개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자원순환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경기 종료 후 구장 내 쓰레기 산은 광주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탈 플라스틱 운동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일회용 컵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화용기 및 텀블러 사용을 늘려야 한다. 타이거즈의 승리에 대한 강렬한 열원만큼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추가 등재 예정된 전남 갯벌

세계유산 목록에 전남 여수·고흥·무안 갯벌이 추가될 것이란 낭보가 들렸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한국의 갯벌 2단계가 등재기준을 충족한 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갯벌 2단계는 2021년 7월 확정된 보성·순천, 신안, 고창, 서천갯벌에 여수·고흥과 무안, 서산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주요 기착지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의 보고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전북 고창갯벌, 충남 서천갯벌, 서산갯벌 등 6개 구성요소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전남에는 3개가 위치하는 셈이다. 해서 갯벌 세계유산의 핵심으로 한층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체계적 보전과 관리, 지속가능한 활용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갯벌은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가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처리되는 회의여서 더욱 뜻깊다고 하겠다.

우수한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전남 갯벌을 지구촌에 널리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전국에서 43%를 차지하는 최대 수준의 면적을 보유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보전환경연구원 연구 결과, 탄소 흡수는 평균 1㎡당 시간당 약 9㎎으로 확인됐고, 표층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광합성·호흡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 관련 시군, 지역사회와 협력해 IUCN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갯벌 추가 지역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 지지 확보 노력, 전통 어업방식의 보존 및 계승,국제적 협력 지속적 강화 등이 그것이다.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내 2조7천216억원의 생산과 1천74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측하는 분석 자료도 나왔다. 전남이 대한민국 갯벌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유산 목록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월요시화 月曜詩話

「감자떡을 살까 말까」 - 정수자

월정사가는 길에 감자떡을 달게 사먹고는 짐도 반쯤 됐다. 그게 '때'가 지닌 마력은 아닐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는다. 때를 사는 일이 감자떡을 사는 일 같을 수는 없다. 감자떡은 운이 좋으면 맛을 보고 살 수도 있고, 조금 사 먹어보고 더 살 수도 있지만 '때'는 맛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때' 없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제철'을 알 수 없이 돌아다니는 것들로 세상이 가득 차 별안간 혹여두워지는 거라 웬 뻘뻘기도 안는 거라 - 출처 : 『파도의 일과』 권은사람, 2021.

*때가 있었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인 줄을 알았던 일은 계속 반복됐고, 고되더라도 다음에는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는 다 <천세천 시인·비평가/웹진 <초록의자> 주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濼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화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서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구독부월 15,000원 1부 800원